

융합, 팬데믹, 험중국 시대의 중국어문학 교육기획 — 부산대학교 중국어문 캡스톤디자인 수업을 중심으로

최진아*

【목 차】

1. 융합, 팬데믹, 험중국 시대의 교육
2. 중국어문 캡스톤디자인 교육운영
3. 중국어문 캡스톤디자인 산출물의 의미
4. 나가는 말

【초록】

융합, 팬데믹, 험중국이라는 단어는 우리 사회 뿐 아니라 대학교육 현장에서 쉽게 만나는 단어이다. 4차 산업혁명의 대두와 함께 부각된 융합이라는 개념은 기존 인문학이 지닌 틀의 변화를 요구한다. 게다가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은 대학 내에서 학문과 교육의 상호작용을 원활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또한 이같은 팬데믹 상황이 중국으로부터 전파된 코로나 바이러스에 기인한다는 사회적 인식은 험중국 정서를 확산시켰고 이는 대학의 중어중문학 교육 및 전공 선호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본 논문에서는 2021년도 2학기 부산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전공수업인 중국어문 캡스톤디자인을 중심으로 중국어문학 전공교육의 새로운 방향성과 그 예시에 대해 고찰한다. 또한 캡스톤디자인의 교육운영과 산출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융합교육의 실례를 제시하고 나아가 이 수업이 팬데믹 시대 교육소통의 통로이며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험중국 정서 완화에 효과가 있음을 서술한다.

【키워드】 융합, 팬데믹, 험중국, 캡스톤디자인, 중국지역문화, 삼국지연의, 해하가, 4대 미녀, 중국차

* 부산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조교수 (chjina425@naver.com)

1. 융합, 팬데믹, 협중국 시대의 교육

융합, 팬데믹, 협중국이라는 단어는 우리 사회 뿐 아니라 대학교육 현장에서도 쉽게 만나는 단어이다. 이 세 단어는 본래 별개의 영역에서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으나 현재 우리나라 대학교육에서 이들 단어는 한꺼번에 밀어닥치는 세 겹의 장치처럼 작동한다.

4차 산업혁명의 대두와 함께 부각된 융합이라는 개념은 인문학의 고유성을 뒤흔들 뿐 아니라 인문학이라는 틀의 변화를 요구한다. 게다가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은 대학 내에서 학문과 교육의 상호작용을 원활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또한 이같은 팬데믹 상황이 중국으로부터 전파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것이라는 사회적 인식은 협중국이라는 정서를 확산시켰고 이는 대학의 중어중문학 교육 및 전공 선호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본 논문에서는 2021년도 2학기 부산대학교 중어중문학과에서 시행한 전공 수업인 중국어문 캡스톤디자인을 중심으로 전공교육의 새로운 방향성과 그 예시에 대해 고찰하겠다. 캡스톤디자인의 교육운영과 산출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융합교육의 실례를 제시하고, 이 수업이 팬데믹 시대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거리를 줄일 수 있음을 설명하고자 한다. 나아가 협중국 정서의 팽배 속에서도 동아시아를 관통하는 문화콘텐츠를 활용하여 중국어문학 전공의 가치를 살릴 수 있는 교육기획에 대해 서술할 것이다.

2. 중국어문 캡스톤디자인 교육운영

1) 캡스톤디자인 교육설계와 진행

캡스톤디자인이라는 어휘는 캡(Cap)과 스톤(Stone)의 합성어로 돌기둥이나 건축물의 제일 위에 자리한 머릿돌을 의미한다. 즉 단계별 과정이 더해져서 가장 마지막에 우뚝하게 보여지는 결과물을 뜻하고 ‘창의적 종합설계’라는 사전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사전적 의미에 의하면 캡스톤디자인은 공학에서 사용하는 개념이다. 공학계열 학생들에게 산업현장에서 부딪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졸업 논문 대신 작품을 기획, 설계, 제작하는 전 과정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곧 캡스톤디자인이다. 따라서 캡스톤디자인 교육설계의 본래 목적은 산업 현장의 수요

에 맞는 기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¹⁾ 공학 교육에서의 캡스톤디자인 교육설계는 ‘목표설정’, ‘합성’, ‘분석’, ‘제작’, ‘시험’, ‘평가’의 요소로 구성된다. 따라서 이러한 공학 교육의 설계를 인문학에 적용시키려면 반드시 별도의 수정과 변용이 수반되어야만 한다.²⁾ 캡스톤디자인 교육설계는 이미 인문학에서도 활성화 되어 있는 PBL(Project-based Learning)³⁾과도 일정 정도 유사하다. 이들은 학습자 스스로가 문제를 제기하고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점 및 교수자가 가이드의 역할을 한다는 부분에서는 비슷한 성격을 지닌다. 다만 캡스톤디자인이 PBL에 비해 가시적인 결과물을 산출해내야 한다는 점에 있어 확실한 변별점을 갖는다. 즉 캡스톤디자인은 학습자가 만들어낸 산출물의 공개적인 전시와 평가에 더욱 중점을 둔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수업 외부의 평가자로부터 즉시적인 공개 현장 평가를 받게 된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캡스톤디자인 교육설계를 대학의 중어중문학과에서 시행한 예는 보편적이지 않다. 조정순의 논문 「인문대학 캡스톤디자인 수강생의 교과 인식 및 수업 만족도에 대한 사례 연구」에서는 21학년도 기준 8개의 지역거점국립대학, 87개 학과에서 24개 과목의 캡스톤디자인을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⁴⁾ 그 가운데 중어중문학과에서는 국내 4개 거점국립대학에서 총 8개의 과목을 운영하고 있다.⁵⁾ 이러한 현실은 공학 계열에서 캡스톤디자인을 매우 일반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 비해 커다란 차이가 있는데 이는 캡스톤디자인이 산업현장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인재를 육성함에 교육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산학협력과는 동떨어진 인문학에서의 캡스톤디자인 교과는 당연히 후발 주자일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1) 교육설계

부산대학교 중어중문학과외 중국어문 캡스톤디자인 과목은 2021년도 2학기에 신설

-
- 1) “캡스톤 디자인”, 『한경경제용어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066542&cid=50305&categoryId=50305> [2022.02.20.]
 - 2) 이시훈·류진한 공저, 『광고홍보학 캡스톤디자인』, 계명대학교 출판부, 2015, pp.14-15 참조. 부산대학교의 경우 공학 전공에서 시행하는 캡스톤디자인 수업을 캡스톤디자인과 관련된 대학 교육 행정의 기본으로 하고 있기에 많은 불편이 있으며 인문학 교육에의 수정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 3) PBL 수업의 정의와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 이시찬, 「PBL 수업 모델을 적용한 중국문학수업 사례 분석」, 『중국문학연구』, 제63집, 한국중문학회, 2016.05.
 - 4) 조정순, 「인문대학 캡스톤디자인 수강생의 교과 인식 및 수업 만족도에 대한 사례 연구」, 『용봉인문논총』, 제59집,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21.11, p.223.
 - 5) 그러나 중어중문학과에서 개설한 캡스톤디자인 수업이 해당 학기에 폐강 없이 실제 운영되었는지의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되었으며 교과요목은 다음과 같다.

중국어문 캡스톤디자인(3-3-0)(4/2)

(Capstone Design in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 중국어문학의 지식을 기반으로 동아시아 한자문화권에 통용될 수 있는 광고, 브랜드 네이밍, 게임, 상품 등의 문화산업기획안을 제작한다. 공학적 방법론인 캡스톤디자인과 융합적으로 연동하여 학생들은 조별로 기획, 토론, 제작, 발표, 평가의 과정을 직접 수행한다.

위의 내용에서 보여지듯이 이 과목은 중국어문학의 지식을 기반으로 한다.⁶⁾ 또한 이 과목은 4학년 2학기 수업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는 중어중문학 전공자가 1학년 부터 학습한 다양한 전공 과목 및 부복수 전공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최종학기에 마치 머릿돌(Capstone)을 올리듯이, 캡스톤디자인 수업으로 산출물을 제작해 낸다는 뜻이다. ‘동아시아 한자문화권에 통용’될 수 있다는 부분은 중어중문학 전공의 가치가 중국에 대한 영역에만 활용되도록 고정된 것이 아니라, 한자문화권인 동아시아 전반을 포괄해 내는 영역으로 시야를 확장시킴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캡스톤디자인 수업은 중어중문학 세부 전공의 학습 배경 유무에 따라서 교육설계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학습자들이 한 번도 배운 적 없는 전공 수업을 캡스톤디자인으로 진행할 때에는 전반부의 상당 부분을 새로운 전공 이론 교수에 치중해야 하기에 산출물을 제작하고 관련 회의를 진행할 교육설계 일정이 빠듯하다.⁷⁾ 그러나 중국어문 캡스톤디자인과 같은 경우는 학습자들이 이미 전공 필수 및 전공 선택 과목을 상당 부분 학습한 4학년, 혹은 3학년이기에 새 지식의 주입 보다는 기존의 전공지식을 정리해 주는 방법이 유효하다. 따라서 부산대학교의 중국어문 캡스톤디자인 과목에서는 제1주 부터 제9주까지 문학, 언어를 포괄한 중국지역문화에 대한 이론 정리 과정이 시행되었다. 다만 중국의 방대한 모든 지역을 학습할 수는 없기에 제3주차에서 중국지역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시행한 뒤, 4주차부터는 베이징, 상하이 등의 중심도시와 현 시기 분쟁과 이슈가 있는 지역, 한국과 연관이 깊은 지역을 중심으로 대상을 선별하여 교육하였다.⁸⁾

6) ‘중국어문학’과 ‘중어중문학’은 전공의 커다란 범주 안에서는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하지만 부산대학교에서 ‘중국어문 캡스톤디자인’으로 명명한 이유는 순수 어문학 뿐 아니라 중국이라는 나라 전체를 교육 내용으로 포함시켜 활용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의미이다.

7)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한 서울 지역 동국대학교 중어중문학과와 전공 과목인 ‘중국소설과 스토리텔링(캡스톤디자인)’의 경우 학습자들은 중국소설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중국소설과 관련된 캡스톤디자인 과정을 학습해야 되기에 이 경우의 교육설계는 상당 부분 이론 수업이 선행되어야만 했다.

(2) 교육의 진행

중국어문 캡스톤디자인 과목은 다음과 같은 교수계획표에 의거하여 진행되었다.

<표1> 중국어문 캡스톤디자인 교수계획표

주차	강의 내용	비고
제1주	수업 인트로 및 진행, 평가 방식 설명	
제2주	중국어문 캡스톤디자인의 정의 및 교육방법 소개 이미 시행된 캡스톤디자인의 산출물 실제 샘플과 기획안을 예시	
제3주	중국지역문화에 대한 전체적 설명, 중국지역지도 외우기 (구글 어스, 바이두 활용)	조 편성
제4주	베이징과 상하이: 역사, 인물, 음식, 주요 플레이스, 지역이미지 (상하이 부분은 부산과 비교)	수업 후반 20분은 조별 토론
제5주	타이완, 홍콩, 마카오: 역사, 인물, 음식, 주요 플레이스, 지역이미지, 특별행정구	비대면시 줌 소회의실 활용
제6주	후베이성 및 우한: 역사, 인물, 음식, 주요 플레이스, 지역이미지, 코로나 19와 우한의 현재 이미지 장강 유역 절강성, 강소성: 강남 수향(水鄉)의 이미지와 정보	1차 기획안 발표
제7주	산시성 시안과 중국 전통 문화의 자부심, 인물, 음식, 주요 플레이 스, 지역이미지, 한당(漢唐)문화전통	
제8주	중국의 화약과 신장 위구르 자치구: 역사, 인물, 음식, 주요 플레이 스, 지역이미지, 중국과의 분쟁 지역에 대한 우리의 시각과 정보	
제9주	조별 회의와 산출물 구상	2차 기획안 발표
제10주	상동	
제11주	상동	
제12주	산출물 초안 제작	3차 기획안 확정발표
제13주	기획안, 산출물 제작 완성	
제14주	전시와 오픈클래스	기획안의 최종발표, 산출물 전시
제15주	교수평가와 상호평가	

위의 교수계획표에서 보여지듯이 이 과목의 제2주차에서는 기시행된 캡스톤디자인

- 8) 이 과정에서는 구글어스, 바이두(www.baidu.com)를 활용한 중국 지역문화 및 지리정보 관련 동영상에 적극 활용하였는데 이후 VR 기기를 이용하여 이 과정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진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고권태·이효영의 논문 「VR을 활용한 중국문화수업 설계 및 사례」, 『중국학』, 제74집, 대한중국학회, 2021.03, pp.226-227에서도 유사한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관련 수업에서 도출된 산출물들과 기획안의 샘플을 학습자에게 예시하였다. 그 이유는 인문학 전공자들에게 생경스런 캡스톤디자인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구체화된 결과물을 산출해 내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보여주기 위함이고 이러한 샘플의 예시는 학습자에게 이 과목에 대한 빠른 적응을 유도할 수 있었다.⁹⁾

제3주차부터 전공, 성별, 학년을 고르게 배치하여 총 4개의 조를 구성하였고 조장을 선출하여 조별로 활동의 환경을 조성하였다. 이어 제4주차 부터는 매 수업의 후반부 20분은 조별 토론으로 진행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을 실시하는 상황 속에서 줌 시스템의 소회의실 기능을 활성화하고 교수자가 각 소회의실을 방문하여 조별 토론을 이끌거나 상황을 점검하였다. 모든 조는 기학습한 중국지역문화 가운데 산출물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콘텐츠 하나, 혹은 두 개를 선별하여 초보적인 기획안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중국국가통계국, 코트라, 외교통상부에서 발간한 백서나 데이터를 반드시 활용하여 기획안의 객관적 근거로 삼도록 하는 훈련을 시행하였다.

이후 1차 발표시기인 제6주차에는 각 조의 기획안 초안이 발표되었다. 예를 들어 코로나 시대 해외여행 금지에 대한 갈등을 음식으로 해소하는 ‘홍콩, 마카오 음식 밀키트 상품기획’, 코로나 종결 이후 여행이 자유로운 시기를 대비하여 한여름에도 기온이 낮은 허베이성 청더(承德)의 지역문화콘텐츠에 근간한 ‘시니어를 위한 피서산장 휴가 상품기획’, 원난성의 지역 특산물인 차를 중심으로 작성한 ‘일반커피 추출기를 이용한 캡슐형 원난차 세트기획’ 등의 아이디어가 발표되었다. 기획안 발표는 제6주차부터 총 3회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1차 발표 시기에 초보적으로 구상한 기획안은 2차 발표 시기인 제9주차에 확정짓도록 하였다. 또한 1차 발표의 기획안이 2차 발표 시에는 다른 주제로 변경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다만 제9주차 이후로는 기획안을 반드시 확정하여 이를 토대로 산출물 구상 단계에 진입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제10주차 부터는 수업 시간 전체가 조별 회의와 토론에 할애되었다. 매 수업 마다 각 조는 산출물 제작과 기획안의 완성을 위한 회의를 진행한다. 교수자의 진행에 의해 각 조는 다른 조의 산출물 제작과 기획안에 대해서 발표와 비평적 토론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발표, 비평, 그리고 토론이라는 학습자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기획안과 산출물은 객관화, 현실화에 대한 검증을 받았다. 본래 공학에서 실시되는 캡스톤디자인은 ‘목표설정’, ‘합성’, ‘분석’, ‘제작’, ‘시험’, ‘평가’의 단계로 수업이 진행되지만 본 수업에서는 ‘기획, 토론, 제작, 발표, 평가’의 단계로 수업을 구성하였다. ‘목표설정’, ‘합성’, ‘분석’의 단계를 인문학 콘텐츠를 활용함에 보다 적합한 ‘기획’이라

9) 이 수업에서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필자가 진행한 동국대학교 중어중문학과와 캡스톤디자인 산출물 샘플과 기획안을 제시하였다.

는 단계로 통합하였고, 공학에서 흔히 시제품 제작 시 사용하는 ‘시험’이라는 단계는 기획안을 ‘발표’하는 단계로 치환시켰다. 이 ‘발표’의 단계에는 산출물을 ‘전시’하는 과정도 당연히 포함시켰다.

2) 캡스톤디자인 산출물의 도출 근거

캡스톤디자인 교육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산출물의 도출이다. 산출물은 교육과정의 이론 학습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만들어지는데 인문학 및 중어중문학에서는 캡스톤디자인의 산출물 도출을 위한 방법론이나 관련 원칙은 아직 정립되어있지 않다. 다만 중국소설 과목을 캡스톤디자인 교육과정으로 운영하여 산출물을 도출할 때, 모티프 분석, 이미지 분석, 시퀀스(Sequence)분석, 문화분석, 낯설게 하기 와 낯익게 하기라는 다섯 가지의 방법론을 이미 적용한 전례가 존재한다.¹⁰⁾ 하지만 부산대학교 캡스톤디자인 과목은 중국소설 과목에만 특정된 것이 아닌, 중국어문학 전반을 산출물의 토대로 삼고 있기에 이러한 다섯 가지 방법론의 적용 이외에도 또 다른 방법론이 고려되어야만 했다. 이에 중국어문 캡스톤디자인에서는 해당 산출물에 대한 시의성 획득 및 근간이 되는 데이터 분석을 추가적인 방법론으로 첨가시켰다. 즉, 일반적인 산출물의 생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산출물이 왜, 지금, 우리 현실에서 의미를 지니는가에 대해 당위성을 확보하도록 하였고 이러한 산출물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객관화된 데이터가 반드시 수반되도록 산출물 도출의 방법론과 원칙을 보장하였다. 다음은 각 조별 산출물이 교수계획표 상의 몇 주차 이론 교육 과정에 근간했는지에 대한 정리 및 산출물에 적용된 방법론을 설명한 것이다.

1조: 나를 알아주는 친구, 지음(知音)

- 『삼국지연의』 인물 MBTI로 알아보는 중국 여행지 추천 플랫폼

→ 제6주차 후베이성, 장강 유역 지역문화학 수업 근간¹¹⁾

→ MBTI라는 MZ세대의 공통 관심에 시의성 부여, 중국고전문학 텍스트 기반 이미지와 모티프 분석, 중국지역문화 분석, 위드 코로나 시대의 여행 수요 관련 한국 여행업계 데이터 분석

2조: 역발산(力拔山) 헬스용품

10) 최진아, 「중국소설 과목의 캡스톤 디자인 교육과정과 학술적 가치에 대한 연구」, 『중국소설논총』, 제52집, 한국중국소설학회, 2017.08, pp.196-198.

11) 캡스톤디자인 수업이 이미 학습자가 축적한 학습경험에 근간하는 바, 1조의 산출물은 중어중문학과 전공 과목인 ‘중국고전소설과 스토리텔링’, ‘중국문학개론’, ‘중국고대문학사’ 및 교양수업인 ‘삼국지문화기행’을 토대로 한다.

- 항우, 손책의 이미지를 활용한 브랜드 네이밍과 제품기획
- 제6주차 장강 유역 지역문화학 및 제7주차 시안과 한당(漢唐)문화 수업 근간¹²⁾
- 항우와 손책에 대한 전통적 이미지 분석 및 텍스트 기반 모티프 분석, 외국산 헬스용품에 대한 중국 측의 선호가 높다는 시의성, 헬스용품 중국 수출 관세 관련 한국 데이터 분석

3조: 화행락(花行樂)

- 중국 4대 미녀 이미지를 기반으로 한 홈메이트 칵테일 세트
- 제6주차 장강 유역 지역문화학 및 제7주차 시안과 한당(漢唐)문화 수업 근간¹³⁾
- 4대 미녀에 대한 전통적 이미지 분석, 고전 텍스트를 통한 4대 미녀 관련 모티프 분석, 저도수 칵테일의 중국 내 수요 관련 중국 데이터 분석

4조: 정휴차(情休茶)

- 팬데믹 시대 힐링을 위한 중국차와 이야기
- 제3주차 중국지역문화 전반에 대한 수업 근간¹⁴⁾
- 중국지역 이미지 분석, 고전 텍스트를 통한 지역 설화와 모티프 분석, 중국차의 한국 수입 시장 관련 데이터 분석

위의 정리에 의하면 각 조별 산출물의 이론적 근간이 되는 수업은 제6주차와 제7주차에 상당 부분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제6주차와 제7주차에서 다루는 지역은 중국의 전통문화를 대표하는 곳으로 학습자 스스로가 기학습한 전공 과목에서 이미 해당 지역 관련 풍부한 중국어문 정보와 지식을 갖고 있는 경우이다. 따라서 한 학기라는 짧은 시간에 캡스톤디자인 산출물을 생산해 낼 때, 학습자들은 제6주, 7주차의 내용을 재료로 삼아 활용하기에 훨씬 용이하게 된다. 또한 각 조별 산출물은 시의성을 반드시 획득하도록 하였고 이러한 시의성은 한국 및 중국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근거로 삼도록 하였다. 특히 3조의 경우 한국 데이터가 아닌 중국 측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는데 이는 3조가 한국 학생과 중국 학생으로 구성된 조라는 점과 연관된다. 즉 중국 학생은 한국 학생에 비해 모국어인 중국어로 검색 사이트를 보다 쉽게 이용하였고 훨씬 다양하고 풍부한 중국 데이터에 접근한 것으로 사료된다.

3) 캡스톤디자인 산출물의 예시와 전시 및 평가

12) 2조의 산출물 또한 중어중문학과 전공 수업 ‘중국문학개론’, ‘중국고대문학사’, ‘중국고전시’의 학습 경험을 토대로 이루어졌다.

13) 3조의 산출물은 중어중문학과 전공 수업 ‘중국문학개론’, ‘중국고대문학사’, ‘중국고전소설과 콘텐츠’ 수업의 학습경험이 토대가 되었고 실제로 이들 수업을 기수강한 학생들로 구성되었다.

14) 4조의 산출물은 ‘중국문화의 이해’, ‘중국고전소설과 콘텐츠’ 수업의 학습경험과 연계되었다.

각 주차 별 교육운영에 의해 12주차와 13주차에는 조별 기획안과 산출물이 완성되었다. 그리고 제14주차에는 병행 방식의 오픈클래스와 공개 실물 전시가 진행되었다.

온오프라인 병행방식의 오픈클래스에는 대학 외부에서도 온라인으로 참여가 가능하였고 이에 4개 조는 PPT 프리젠테이션으로 자신들의 기획안을 최종적으로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조: 나를 알아주는 친구, 지음(知音)

- 『삼국지연의』 인물 MBTI로 알아보는 중국 여행지 추천 플랫폼

1조의 기획안에서는 중국고전소설 『삼국지연의』에 등장하는 인물유형을 MBTI 유형과 매칭하였다. 예를 들어 자신의 MBTI 테스트 결과가 A라는 유형이라면 A유형을 『삼국지연의』 속 인물 가운데 한 사람과 연결시킨다. 그리고 『삼국지연의』의 인물이 활동한 실제 중국지역을 소개하여 자신에게 알맞은 중국 여행지를 추천한다. 1조는 ‘지음’이라는 이름의 MBTI 테스트 및 여행지 매칭 책자를 샘플로 제시하여 실물 전시하였으며 현장의 참관자들에게 MBTI 테스트 및 여행지 매칭을 실시하였다.

2조: 역발산(力拔山) 헬스용품

- 항우, 손책의 이미지를 활용한 브랜드 네이밍과 제품 기획

2조는 항우의 시 ‘해하가(垓下歌)’의 한 구절인 ‘역발산헤기개세(力拔山兮氣蓋世)’를 변용하여 ‘힘은 산을 뽑는다’는 헬스용품의 브랜드 네이밍과 상품을 기획하였다. 헬스용품의 경우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할 경우 협정세율 2.4%만 부과되어 타종목에 비해 경쟁력을 지닐 수 있다. 또한 고소득 층 중국 남성은 자국산 보다는 외국에서 수입한 헬스용품을 선호한다는 데이터에 기반하였다. 중국인들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패왕 항우와 소패왕 손책의 제왕적, 남성적 이미지를 차용하여 역발산이라는 이름의 복압벨트와 역발철(力拔鐵)이라는 이름의 스트링을 전시하였다. 그리고 이들 실물 샘플과 함께 ‘힘은 산을 뽑고 힘은 철을 뽑는다’는 브랜드 선전 문구를 제시하여 제품의 기획 의도를 나타내었다.

3조: 화행락(花行樂)

- 중국 4대 미녀 이미지를 기반으로 한 홈메이드 칵테일 세트

3조는 중국학생과 중국학생으로 구성된 조로 3조의 기획안과 산출물은 우리말과 중국어로 병행 제작되었다. 3조에서는 중국 4대 미녀인 양귀비, 서시, 초선, 왕소군의 이미지를 활용한 홈메이드 칵테일 세트를 제시하였다. 3조는 4대 미녀가 활동한 지

역, 그녀들에 대한 역사와 문학에서의 기록을 토대로 색깔, 꽃, 과일 등의 요소를 추출하여 각테일 세트의 세부 내용을 구성하였으며 중국 저도수 알콜시장에 대한 중국 측의 데이터를 분석하였고 팬데믹 시대 가정용 제품 기획이라는 시의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4조: 정휴차(情休茶)

- 팬데믹 시대 힐링을 위한 중국차와 이야기

4조는 초안 작성시에는 윈난성 지역의 차에 중점을 두었다가 수업 전체에서 배운 중국지역문화를 기반으로 활용 범위를 확장시켰다. 특히 4조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중국차와 차 음용시 수반되는 힐링을 주제로 기획하였다. 이에 중국 지역별 특산 차를 소개하며 차 포장지에 인쇄된 QR코드에 해당 지역의 역사와 설화, 풍경, 음악 등을 삽입하였다. 이는 중국차 한잔을 음용하면서 여행 금지에 대한 현실적 갈등을 해소하고 동시에 QR코드를 통한 음악으로 팬데믹 시대 개인의 소외감을 치유하도록 한다는 장치이다. 특히 4조에서는 혐중국적 정서가 팽배한 현 시기에도 오히려 중국차의 수입은 더 증가되고 있다는 데이터를 근거로 하여 중국차가 한, 중 관계에 훌륭한 가교 역할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이어서 각 조의 산출물은 2박3일에 걸쳐 공개 전시되었다. 기획안의 내용을 가시화할 수 있는 샘플의 형태로 산출물이 제작되었고 현장에는 산출물에 대한 설명 패널이 설치되었다. 각 조별 산출물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그림1> 나를 알아주는 친구, 지음(1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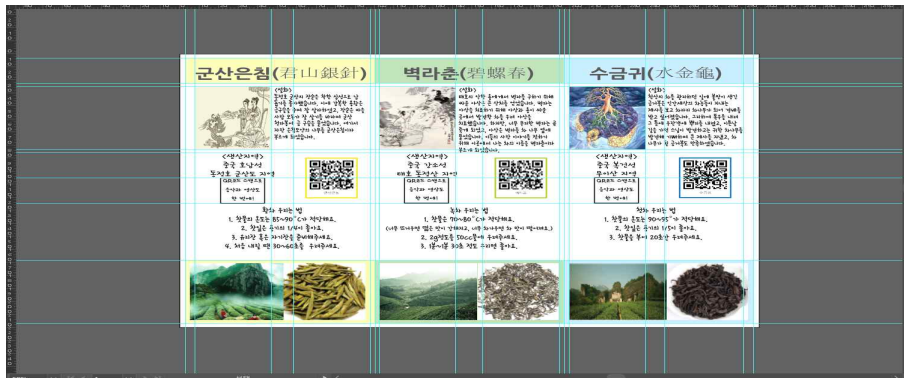
<그림2> 역발산 헬스용품(2조)



<그림3> 중국 4대 미녀를 기반으로 한 홈메이트 칵테일 세트(3조)



<그림4> 정휴차 설명서(4조)



위의 산출물 전시장에서 3조의 경우는 양귀비 칵테일을 샘플로 만들어 전시하였다. 코로나 상황인 관계로 실제 칵테일 시음회를 열지는 못하였지만 QR코드를 통해 양귀비 칵테일의 제조 과정을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고 나아가 양귀비의 활동 무대인 중국 시안의 모습을 감상할 수 있는 체험을 제공하였다. 4조 역시 중국 차 시음회를 진행할 수는 없었지만 중국차 샘플과 포장 상자를 통해 기획의 의도를 담아내었다. 특히 설명서 부분에 QR코드를 부착하여 관람자가 각 차의 생산지역과 연관된 이야기, 지역 풍경을 체험하고 차를 마시는 행위를 통해 중국여행에 대한 갈증을 대리만족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중국어문 캡스톤디자인 수업에 참여한 총 4개 조에게는 교수자 평가와 학습자 상호평가를 통해 점수가 부여되었다. 특히 상호평가는 학습자 간에 시행된 것으로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을 참조로 하였다. 첫째는 병행방식의 기획안 발표시간에 외부에서 접속한 전문가에 의한 논평을 참고하여 자신의 조를 제외한 다른 조 가운데 가장 우수한 조를 학습자 스스로가 선정하게 하였다. 둘째, 실제 전시 현장의 호응도를 참고하였다. 전시 현장에서는 판넬이 설치되어 전시의 참관자가 자신이 선호하는 해당 조에게 스티커, 또는 포스트잇을 이용한 논평을 부착하였는데 이를 토대로 하여 학습자는 가장 호응이 높은 조에게 무기명 투표를 하여 상호평가를 완성하였다.¹⁵⁾

15) 본 논문의 대상인 부산대학교 중국어문 캡스톤디자인 과목의 평가 방식에 대해서는 타논문

3. 캡스톤디자인 산출물의 의미

1) 중국어문학 기반의 융합역량

4차 산업혁명과 융합 학문이라는 화두는 이미 대학교육의 현장에서 흔하게 보인다. 다만 융합이라는 의미가 공학을 중심으로 하여 타 학문을 포섭하는 것으로 인지되는 현실에서 인문학이 중심이 되는 대학 융합교육의 역량 확보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어문 캡스톤디자인 교육설계에 의해 도출된 4개의 산출물은 모두 융합적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이들 산출물은 모두 학습자들이 중국어문학이라는 전공 지식에 기반하여 만들어 낸 것이기에 학습자들에게 캡스톤디자인 교육설계는 자신이 수행하는 학습에 대해 성취 의지를 갖도록 만든다. 뿐만 아니라 중국어문학이라는 전공이 현실적인 효용을 발휘한다는 ‘전공의 쓸모’에 대해 확신하게 한다. 이러한 학습자의 학업효능감과 전공효용성¹⁶⁾은 중국어문학 기반의 융합역량의 확보와 연동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1조의 ‘나를 알아주는 친구, 지음(知音) - 『삼국지연의』 인물 MBTI로 알아보는 중국 여행지 추천 플랫폼’은 중국고전문학인 『삼국지연의』에 기반하여 교육심리에서 활용되는 MBTI 테스트 및 중국 지역여행을 하나로 연결시킨 산출물이다. 『삼국지연의』에 등장하는 다양한 인물의 행위 및 그 결과는 현대인에게도 결과를 예상할 수 있는 하나의 행동 샘플이 될 수 있다. 또한 『삼국지연의』 인물과 관련된 지역 여행을 통해 자신과 닮아 있는 고전문학 속 인물이 숨 쉬던 공간을 체험하며 자신의 현재를 정립할 수 있는 경험을 얻게 된다. 2조의 ‘역발산 헬스용품 - 항우, 손책의 이미지를 활용한 브랜드 네이밍과 제품 기획’은 중국고전문학과 브랜드 런칭, 광고 홍보를 융합시킨 산출물이다. 항우, 손책이 지닌 제왕, 남성의 이미지를 현대화하였으며 ‘힘은 산을 뺏고, 힘은 철을 뺏는다’라는 중국 전통적 정서에 공감하도록 만들었다. 3조의 ‘화행락 - 중국 4대 미녀 이미지를 기반으로 한 홈메이트 칵테일 세트’는 중국고전문학, 중국지역문화학을 토대로 하였고 홈메이트 칵테일 세트가 실제 판매된다면 식품공학, 광고홍보학과도 연결시킬 수 있는 산출물이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4대 미녀를 콘텐츠로 한 상품이 이미 상당수 있지만 포장에만 적용될 뿐 그 내용물

서 출판이 예정되어 있다.

16) 전공 학습에 대한 학습자의 학업효능감 및 전공효용성에 대한 기본 이론은 다음의 논문을 참조. 김아영, 「교사효능감 및 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층 분석」, 『교육심리연구』, 제17권, 2호, 한국교육심리학회, 2003.

에는 적용된 선례가 아직 없다. 또한 전시 현장에서 이 칵테일 세트에 대한 관람자의 호응이 상당히 컸고 음용을 원하였던 바, 3조의 산출물은 실제 제작의 단계로의 가능성도 열어 둘 수 있다. 4조의 ‘정휴차 - 팬데믹 시대 힐링을 위한 중국차와 이야기’는 중국지역문화학을 기반으로 경영 및 중국무역 분야와 연결시킬 수 있다. 현재 중국차를 수입하는 유력한 한국 업체 가운데 하나인 BOCHA에서는 포장 및 제품 고급화에는 주력하고 있으나¹⁷⁾ 차 생산지와 관련된 중국의 문화를 담아내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4조의 산출물은 아직 관련 업계에서 시행된 바 없는, 중국지역문화를 근간으로 한 브랜드 런칭에도 유효할 것으로 예상된다.

2) 팬데믹 시대의 소통역량

중국어문 캡스톤디자인 과목에서 교수자의 역할은 지식을 학습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의 활용을 안내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교수자는 가르치는(Teaching)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 안내하고 조정하는(Coaching)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는 기존 교육방법에서 교수자가 지닌 일방향적 절대 권위와 상이한 상황이다. 유은정·김두희·김미진·구원희의 연구 「CE-PBL을 적용한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비대면 수업에서의 대학생 경험 분석」에서는 ‘교수자-학습자 관계 재정립’¹⁸⁾에 대해 분석하였는데 비대면 환경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에서의 교수자는 학생들에게 기존의 교수자로서 뿐 아니라 촉진자, 안내자, 지원자로 인지된다고 고찰하였다. 이러한 역할 정립은 중국어문 캡스톤디자인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녹화된 동영상의 재생 혹은 일방향적 강의에 의지했던 교수자의 기존 역할에는 이전과 다른 확장이 필요해진다. 비대면 줌 환경에서 교수자는 각 조별 소회의실을 출입하며 학습자의 현재 토론 상황에 집중해야 한다. 그리고 각 학습자의 개인 능력을 고려하여 적절한 역할이 조 안에서 부여되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학습자의 기획안 및 산출물이 완결성을 확보하도록 끊임없는 피드백은 제공해야 한다. 학습자 역시 수동적인 학습의 역할에 고착될 수 없다. 줌 기반의 비대면 환경에서는 손들기 기능을 활용하여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고 상대 학습자들과 토론을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조별 발표에 대비하여 기획안과 산출물을 준비하여 교수자와의 상호작용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팬데믹 시대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교수자, 학습자 간의 직접적 상호 작용 및 학습자

17) BOCHA, <https://www.bocha.co.kr/?NaPm=ct%3Dkzv0mzwu%7Cci%3Dcheckout%7Ctr%3Dds%7Ctrx%3D%7Chk%3D1886096f6392fa6f21d7adc3f944f0bfe486bb80> [2022.02.20.]

18) 유은정·김두희·김미진·구원희, 「CE-PBL을 적용한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비대면 수업에서의 대학생 경험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21권, 9호,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지, 2021, pp. 40-41.

집단 간의 상호작용은 감소될 수 밖에 없지만 캡스톤디자인 교육설계의 근간인 조별 활동이라는 영역은 학습자에게 분명히 수업에 대한 소속감을 확립시킨다.

전시와 발표 부분에서도 중국어문 캡스톤디자인은 학습자의 소통역량을 증진시켰다. 온오프라인 병행강의 방식을 통해 접숙한 외부 참관자로 인해 학습자는 학습의 결과물을 대학 바깥의 세상으로 발표하는 경험을 얻게 되었다. 또한 대학 내 현장에서 산출물을 전시하는 기회를 통해 학습자는 자신의 산출물을 관람자에게 설명하고 이해시키며 소통을 꾀하는 역량을 확보하였다. 그 뿐 아니라 중국어문 캡스톤디자인에서는 관람자가 각 조의 전시를 본 뒤, 잘한 조에게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응원글을 적는 활동을 진행하였다. 아래의 <그림5>에서 보여지듯이 관람자 또한 수업에 참여하여 팬데믹 시대 소통의 부재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였고 이는 캡스톤디자인 수업이 소통역량을 극대화하는 부분에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림5> 관람자들의 수업 전시 참여(3조의 예)



"칵테일 키트 안에 담긴 중국 4대미녀의 다양한 내용 때문에 더욱 매력적인 칵테일입니다!"
 "MZ세대인 저라면 한번쯤 구매하고 싶은 칵테일 키트예요."
 "한국의 진로소주와 중국의 4대미녀를 연결시켰다니, 재미있어요!"
 "실제로 판매해주세요!"

3) 협중국 정서의 극복과 화합역량

<그림5>에서 제시된 전시장의 스티커 붙이기, 포스트 잇을 이용한 응원글 적기를 통해 '중국어문 캡스톤디자인' 수업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은 조는 3조였다. 3조의 경우 한국학생과 중국학생이 하나의 팀이 되어서 우리말과 중국어로 병기한 홈페이지드 칵테일 설명서를 현장에 전시하였다. 현 시기 전국의 대부분 대학에는 중국 국적의 유학생이 대학의 구성원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이질적인 언어와 한국생활문화 및 한국대학문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우리 대학 내에서 타자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군다나 팬데믹 상황의 초래가 중국으로부터 기인했다는 협중국적 인식의 확대는 중국 유학생 개인에 대한 혐오로 이어지기까지 한다.¹⁹⁾ 중국이라는 국가의 체계와 그들의 사유방식에 찬성하지 않는 반중(反中)이 아

19) 이성철, "중국이 바이러스는 아니다", 『한국일보』, 2020.02.03., <https://www.hankookilbo.com/N>

년, 중국인 개개인에 대해 무조건 혐오하고 배척하는 혐중(嫌中)의 정서는 사회가 어지럽고 힘들 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제노포비아(Xenophobia)적 징후이기도 하다. 따라서 다양성의 조화가 중요한 대학의 교육에서 혐중 정서의 존재는 중국 유학생들을 소외시킬 뿐 아니라 중어중문학 전공 선호에 방해 요소로도 작용한다. 그러나 중국어문 캡스톤디자인 수업의 3조의 경우에서와 같이 중국 학생은 자신들의 모국어를 십분 활용하여 완성도 높은 조별 산출물 제시에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²⁰⁾ 아울러 전시에 참관한 수많은 중국 학생들은 같은 국적 학생이 역량 발휘를 하는 현장을 직접 목도하며 대학 내 소속감을 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중국어문 캡스톤디자인 교육기획에서는 동아시아를 관통하는 콘텐츠를 기획하고 산출해 내는데에 그 목적이 있는 바, 현재에 유용한 가치를 지니는 콘텐츠는 동아시아가 공유하는 문화적 자산과 감정에 근간한다는 사실을 견지하였다. 따라서 중국이라는 하나의 국가를 특정하지 않는, 원천적인 공유 문화라는 기반은 혐중국 정서를 극복하고 화합적 역량의 확장에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 예로 중국어문 캡스톤디자인 산출물의 근거가 되는 『삼국지연의』, 항우와 손책, 4대 미녀, 중국차는 혐중국적 정서와 관계없는 문화의 영역이다. 따라서 이같은 동아시아의 공유 문화에 근간한 콘텐츠의 기획과 그것의 상품화는 혐중국 정서를 극복하여 대학교육에서의 집단 간 화합역량을 제고시키는 교육기획이 될 수 있다.

4. 나가는 말

이상으로 중국어문학 캡스톤디자인 교육을 중심으로 융합, 팬데믹, 혐중국 시대 중어중문학의 교육기획에 대해 논의하였다. 캡스톤디자인이라는 공학의 교육방법을 인문학, 중어중문학에 이중 결합시킨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실험적인 성격을 지닌다. 그러나 일방향적인 교육이 대학에서 과연 절대적인 교육방법인지에 대한 의문을 지닌다면 그것이 비록 공학에서 출발한 교육방법이며 이질적 결합을 지향한다고 해도 현 시기 대학교육에서 활용해야 된다고 판단한다. 그 이유는 캡스톤디자인이라는 교육방법이 대학교육과 학습환경을 상호 소통의 방식으로 정립시키며 서로 다른 영역 간의 소통과 융합을 교육시키는 가장 적절한 교육방법이기 때문이다. 다만 실제로 대학 교육현장에서 캡스톤디자인 교육을 진행하려면 몇 가지 현실적인 문제를 수반하

ews/Read/202001301891771719 [2021.06.30.]

20) 최진아, 「중국소설 과목의 캡스톤 디자인 수업 환경에 대한 연구」, 『중국소설논총』, 제54집, 한국중국소설학회, 2018, pp.276-278.

게 된다. 교수자가 학습자 개개인을 파악해야 하는 캡스톤디자인 수업에서는 15명을 넘는 수강인원은 교수자의 부담감이 가중시키며 교육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지 못한다. 또한 캡스톤디자인 교육설계가 공과대학의 교육을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기에 인문학, 중어중문학에 적용하려면 대학 행정에서의 유연한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어문 캡스톤디자인은 텍스트 위주 교육이었던 중어중문학 교육에 있어서 학습자에게 전공에 대한 학업효능감과 전공효용성을 강화시켰다. 그리고 중어중문학을 배워서 과연 어떠한 현실적, 현재적 역량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 확신, 그리고 전공학습의 가치와 자기주도성도 부여하였다. 아울러 팬데믹으로 인한 대학 교육에서의 상호 소통 감소 부분 및 혐중국 정서의 대안 방안에 대해서도 캡스톤디자인의 교육기획은 일정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²¹⁾ 이는 ‘중국어문 캡스톤디자인’ 수업이 현 시기 대학교육에서의 선도적인 파생 효과를 산생시킬 수 있는 플랫폼이 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 류종목·송용준·이영주·이창숙 역해, 『시가』, 명문당 2017.
 이시훈·류진한 공저, 『광고홍보학 캡스톤디자인』, 계명대학교 출판부, 2015.
 班固, 『漢書』, 中華書局, 2007.
 范曄 編撰·李賢 等注, 『後漢書』, 中華書局, 1965
 劉昫等 編撰, 『舊唐書』, 漢語大詞典出版社, 2004.
 羅貫中, 『三國演義』, 中華書局, 2009.
 趙曄 原著·張覺 譯注, 『吳越春秋全譯』, 貴州人民出版社, 2003.

<논문>

- 고권태·이효영, 「VR을 활용한 중국문화수업 설계 및 사례」, 『中國學』, 제74집, 대한중국학회, 2021.
 김수경, 「감염병, 이념, 제노포비아: ‘코로나19’의 정치화와 반중(反中) 현상」, 『다문화와 평화』, 제14권, 1호, 성결대학교 다문화평화연구소, 2020.
 김지선, 「창의융합의 고전소설 교육과 방향성 연구 - 캡스톤디자인 교육사례를 중심으로」, 『

21) 최근 ‘중국어문 캡스톤디자인’ 수업의 한 조가 자신들의 산출물을 바탕으로 공대 전공자와 겨루어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에서 수상을 하였다. 이 경진대회에서는 실제 산업체를 분석하여 캡스톤디자인의 산출물을 산업체에 적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기에 중어중문학 전공자의 수상은 더욱 그 의미가 크다. 그러므로 중국어문 캡스톤디자인의 산학교육으로의 확장 역시 중어중문학의 학문 기반을 중심으로 추진해야 하는 이후의 융합과제이기도 하다.

- 중국어교육과연구』, 제35집, 한국중국어교육학회, 2021.
- 어윤일·정현주, 「고등 교육에 대한 글로벌 탐색: 팬데믹 이후 도전과 대응」, 『교육혁신연구』, 제31권, 3호, 부산대학교 교육발전연구소, 2021.
- 우신영, 「팬데믹 시대, 문학교육 앞의 질문들에 대하여」, 『문학교육학』, 제71권, 한국문학교육학회, 2021.
- 유은정·김두희·김미진·구원희, 「CE-PBL을 적용한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비대면 수업에서의 대학생 경험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21권, 9호,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지, 2021.
- 이시찬, 「PBL 수업 모델을 적용한 중국문학수업 사례 분석」, 『중국문학연구』, 제63집, 한국중문학회, 2016.
- 임희수·임은미, 「코로나 19상황에서 대학 온라인 수업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몰입과 자기주도 학습 간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21권, 9호,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지, 2021.
- 정 행·박용진·박진숙, 「시각정보요소를 적용한 중국차(茶) 패키지디자인 개발」, 『기초조형학연구』, 제20권, 5호, 한국기초조형학회, 2019.
- 조경순, 「인문대학 캡스톤 디자인 수강생의 교과 인식 및 수업 만족도에 대한 사례 연구」, 『용봉인문논총』, 제59집,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21.
- 최 숙·김현미, 「팬데믹 상황의 중국인 유학생 뉴스 토픽에 대한 탐색적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21권, 6호, 한국콘텐츠학회, 2021.
- 최진아, 「중국소설 과목의 캡스톤 디자인 교육과정과 학술적 가치에 대한 연구」, 『중국소설논총』, 제52집, 한국중국소설학회, 2017.
- _____, 「중국소설 과목의 캡스톤 디자인 수업 환경에 대한 연구」, 『중국소설논총』, 제54집, 한국중국소설학회, 2018.
- 황지연, 「감염병 보도 프레임에 관한 중국 언론의 번역 - 인민망 한국어판 사설의 혐오 담론을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제25권, 4호,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연구소, 2021.
- 秦紋·朱皓迪·陳嘉儀, 「疫情背景下線上教學的常態化思考」, 『中外交流』, 第24卷, 重慶市人民政府辦公廳, 2020.
- 姜惠玲·劉和海, 「疫情背景下大學生在線上協同學習案例研究——以『微課的設計與與開發』課程為例」, 『中國教育信息化』, 第21期, 中國教育信息化雜誌社, 2020.

<기타자료>

- 이성철, “중국이 바이러스는 아니다”, 『한국일보』, 2020.02.03.,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1301891771719> [2021.06.30.]
- 최진아, 「중어중문학과 전공 수업 ‘중국고전소설과 콘텐츠의 사례’ - 학업효능감과 전공효용성으로의 연계를 중심으로」, 한국중국어교육학회 발표자료집, 2021.
- “캡스톤 디자인”, 『한경경제용어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066542&cid=50305&categoryId=50305> [2022.02.20.]
- BOCHA, <https://www.bocha.co.kr/?NaPm=ct%3Dkzv0mzwu%7Cci%3Dcheckout%7Ctr%3Dds%7Ctrx%3D%7Chk%3D1886096f6392fa6f21d7adc3f944f0bfe486bb80> [2022.02.20.]

【논문초록】

키워드 Key Words	중문	融合, 大流行病, 嫌中國, 頂點設計課程, 中國地域文化, 三國志演義, 垓下歌, 四大美女, 中國茶				
	영문	Convergence, Pandemic, Sinophobia, Capstone design, Chinese local culture, The Three Kingdoms' story, Gaixiage, The great beauty of four women, Chinese tea.				
<div>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Education Planning in the Era of Convergence, Pandemic, and Sinophobia : Focusing on the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Capstone Design Class at Pusan National University</div> <div>Choi Jin-A</div> <p>The words convergence, pandemic, and Sinophobia are words that are easily encountered not only in our society but also in the field of university education. The concept of convergence highlighted with the ris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requires a change in the framework of existing humanities. In addition, the global pandemic situation caused by COVID-19 has prevented the interaction between academics and education within universities. In addition, the social perception that such a pandemic situation is caused by the coronavirus spread from China has spread anti-Chinese sentiment, which has a significant impact on universities' preference for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education and majors. In this situation, this paper examines the new direction and examples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major education, focusing on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Capstone Design" major class at Pusan National University in the second semester of 2021. In addition, examples of convergence education are presented through analysis of the educational operation and output of Capstone Design, and furthermore, this class is a channel for educational communication in the Pandemic era and is effective in alleviating anti-Chinese sentiment using cultural content.</p>						
저 자	최진아 / 崔眞娥 / Choi Jin-A					
논문작성일	투 고 일	2022.02.20.	심 사 일	2022.02.24.	게재확정일	2022.03.11.